

독일어의 모음 장·단음표기에 대한 정서법적 논쟁 고찰

이진희 (영산대)

0. 머리말

독일어에서 모음의 장음과 단음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으로 매우 지대한 관심 분야로서 독일 언어학계의 연구대상으로 관심을 얻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정서법 연구에 대한 관심 고조 속에서 이론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언어교육학적, 심리언어학적 관점에서 표기법의 합리화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의도에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기존 연구결과에 대해 Ramers (1999a)의 비판과 함께 새로운 연구관점에 대한 주장이 최근 제시되고 이에 대해 Eisenberg (1999)가 방어적 입장에서 대응함으로써 또 다시 언어학계의 관심을 끄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Ramers (1999b)는 Eisenberg의 대응에 즉각 반박하고 나서으로써 그 논쟁의 열기를 더하고 있으며, 이어 일부 학자들이 이에 가세함으로써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Primus 2000). 본 논문에서는 최근 독일 언어학계에서 벌어진 모음의 장단음 표기법에 대한 정서법적 논쟁을 Ramers와 Eisenberg의 입장 대립을 중심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그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독일어의 장·단음 표기법은 보통 언어교육 현장에서 매우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는 매우 많은 표기방법들과 규칙이 서로 상호간에 관련을 이루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많은 경우 모음의 장·단음을 자소론적 측면에서 아무런 표기법 없이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이와 반대로 그 특성을 세분화하여 매우 다양한 표기 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화 하려는 경향도 있다. 장·단음 표기법의 예를 들어보면 단모음의 경우 후속 자음을 중복 표기하여 나타내는 방법, 모음 e, a, o의 경우 중복모음 표기로 장음을 나타내는 방법, 모음 i의 경우 <ie>로 표기함으로써 장음을 나타내거나 장음표기 -h를 통해 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는 모음의 장·단음 특성을 다양한 표기 방식을 통해 자소론적 측면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표출되었다고 생각된다.¹⁾ 그러나 언

어사용자 측면에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활용기준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직 그 현상만을 분석하여 나타내는 규칙만이 증대함으로 인한 언어교육적 부담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서 실제 언어사용자 측면에서 또는 언어 교육적 관점에서는 매우 난해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어는 전형적인 알파벳문자로서 모음의 장·단음 표기법에 대한 문제는 음소와 자소의 대응관계에 있어서의 규칙성이 그 주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즉 음운론과 자소론적 관점에서 밀접한 상관관계 연구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표의문자인 중국어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나, 표음문자인 알파벳 체계에서는 음소와 자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운체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모음의 장·단음 특성이 자소론적 체계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고 명료한 규칙성이 나타나야 한다. 알파벳 시스템에서 음운체계의 가장 최소 단위인 음소와 표기법 체계의 가장 작은 단위인 자소와의 대응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알파벳 문자체계의 특징을 반영하는 음소와 자소의 대응관계에 대하여 언어학자들은 음소-자소론적 원칙, 또는 음운론적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언어 사회적으로 활용상의 실제적 측면에서 음소와 자소간의 이상적 관계인 1:1 대응관계는 어느 언어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대 다대응 또는 다대 다대응의 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표기법상의 문제는 야기되는 것이다.²⁾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음소의 특징을 자소론 체계에서 정확히 표기해내 자소와의 대응관계에 규칙성을 제시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자소론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음운론적 원칙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형태론적, 어휘론적 원칙 또는 언어사회적 측면이 간과됨으로써 야기되는 정서법상의 규범화 과정의 문제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서법의 다양한 기본 원칙들이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보다 나은 규범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
- 1) 장모음에 대한 표기방법을 그 사용빈도순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rimus 2000, 19 참조): ① /i:/를 위한 <ie>: *bieten, viel, Liebe*; ② 장음표기 -h: *ihm, Geweih*; ③ 모음자소의 중복표기: *Saal, Boot*; ④ <ie> + <h>: *Vieh, zieh*.
- 2) 예: /e/ ↔ <e>, <ä>; /a:/ ↔ <a>, <aa>, <ah>; /ɛ:/, /ə/, /ɛ/ ↔ <e>; /ɛ/, /ɛ:/ ↔ <ä> 등.

1. 모음의 장·단음 표기 현상 고찰

언어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장모음과 단모음의 표기 현상을 분석하여 모음의 장음과 단음이 어떠한 경우, 즉 어떠한 환경에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분석하여 그 체계성을 밝혀낸다면 표기법상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Munske (1997)는 모음 주변의 음소와 음절수, 음절 내에서의 위치, 강세 등을 기준으로 장음과 단음의 분포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³⁾

	비강세 음절		강세음절						
	(대개 [ə], [ɛ])	말음	m, n, l, r 앞에서		유성 폐쇄음 앞에서 (b, d, g, v, j z)	무성 폐쇄음 앞에서 (p, t, k, f, X, s)	pf, ts, ʃ, ʝ 앞에서	자음결합 앞에서	
			단음절	다음절	r+치음	기타			
단모음 (KV)	+	-	(+)	+	(±)	+	+	+	+
장모음 (LV)	-	+	+	+	+	+	-	+	-
위치 번호	1	2	3	4	5	6	7	8	9

위의 표를 보면 1) 단모음은 항상 비강세 음절에서(위치1)나 pf, ts, ʃ, ʝ (위치7) 앞에서와 대다수의 자음결합의 앞에서 나타난다(위치9). 2) 장모음의 경우 강세음절의 말음에서(위치2) 또는 유성폐쇄음 앞에서 항상 나타나며 (위치5), r을 동반한 단음절어에서 대개 나타난다. 3) m, n, l 앞의 단음절어나(위치3), m, n, l, r 앞의 다음절어(위치4), 무성폐쇄음 앞(위치6), 일부 자음결합(위치8)에서는 장모음과 단모음이 모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모음의 장·단음에 대한 대립 양상

3) Munske 1997, 42ff 참조.

인 예외 상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치 1, 7, 9에서는 단모음만이, 위치 2, 3, 5에서는 장모음만이 나타나며 위치 3, 4, 6, 8에서 예외적으로 장·단음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음의 장음과 단음의 특징이 표기법상 어떠한 자소와 대응관계에 있으며 이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치1: 비강세음절의 모든 모음은 단음이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비강세 모음은 굴절형태소 *-e, -en, er, -em* 등에서의 [ə]이다. 여기에 또한 접두어 *er-, ver-, zer-* 등과 접미어 *-e, -er, -ler*에서 종종 나타나는 [ɛ]음이 추가된다. 비강세 음절의 굴절형태소나 접사에서의 [a]와 [ɛ]는 항상 자소 <e>로 표기된다. 이와 반대로 독일어의 경우 어휘형태소에서 주로 나타나는 강세 음절에 있는 단모음의 경우 모음중복 표기를 통해 자소론적 체계에 반영된다. 반대의 경우는 대개 모음의 길이에 대한 표기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바로 굴절형태소나 접사에서와 어휘형태소의 경우 일관성 있는 표기법이 나타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위치2: 강세음절의 말음인 모음은 독일어의 음운체계에서는 항상 장음이 된다. 이 경우 보통 모음의 길이가 표기법상에 분명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i:/의 경우 <ie>를 통해 표기되거나 (예: *die, wie, sie, nie*), 모음중복 (예: *Schnee, Klee, See*), 장음표기 -h를 통해 표현된다 (예: *nah, weh, Reh, Zeh, roh, Stroh, froh, Kuh, Schuh, zäh, früh*). 그러나 <h>는 종종 어휘형태소에서 굴절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 음절분리 현상을 동반하는 문제가 있다 (예: *nahe*). 또한 이 경우에 있어 모음의 장음표기는 지나치다는 입장도 있다. 과도한 모음의 길이 표기로서 “단어확장”이란 비판을 받기도 한다.⁴⁾

위치3: 단음절에서 r 앞의 모음은 거의 장음이며 (예: *bar, gar, klar, war, zwar, Schar, Star, der, her, er, wer, schwer, wir, mir, dir, vor, Tor, nur, Bär, Gör, für, (Ge)schwür, Tür; vier, schier, Gier, Stier; Haar, Paar, Meer, Moor; Jahr, wahr, mehr, sehr, wehr, Verkehr, Ruhr, Gebühr* 등), l, m, n 앞의 모음은 대부분 장음인 경우가 많다 (예: *Mal, Schal, Wal, Tal, Qual, Gran, Kran, kam, dem, wem, Strom, Plan, Schwan, Tran, wen, den, gen, grün, Ton; Saal, scheel;*

4) Roemheld 1955, 79와 Augst 1985a, 12 참조.

Mahl, kahl, Pfahl, Strahl, Zahl, Mehl, hohl, Kohl, Gefühl, kühl, Rahm, Zahn, lahm, Lehm, genehm, Ruhm, Hahn, Kahn, Zahn, zahn, Föhn, Hohn, Lohn, Mohn, Sohn, Gedröhn, kühn 등).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단모음인 경우 장음과 대비하여 항상 표기법상에 단모음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irr vs. ihr, starr vs. Star, Herr vs. hehr/Heer, wirr vs. wir, Narr, dürr, Geschirr* 등; *All vs. Aal, Wall vs. Wal/Wahl, Stall vs. Stahl, Fall vs. fahl, Fell vs. fehl, Lamm vs. lahm, wann vs. Wahn, wenn vs. wen, denn vs. den* 등).

위치4: 다음절어에서 m, n, l, r 앞에서 비강세 모음의 경우 단음과 장음이 모두 나타난다. 단모음의 경우 항상 중복자음 표기가 나타나며 (예: *harren, zerren, irre, dorren, murren; innen, Sonne* 등), 장모음의 경우 대개 장음표기 -h를 통해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예: *fahren, bohren, lehren, Fähre, Föhre, führen; Fohlen, Kehle, mahlen, lähmen, Rahmen; Bühne, Sahne, Bohne, Sehne* 등). 또한 모음의 장·단음에 대한 표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 *sparen, Schere, stören, hören, Hure, schmoren; Diene, Träne; Schale, Schule, quälen; Schemel, Samen, Krümel* 등). 특히 동음이의어의 경우는 구별하여 표기하기 위해 장·단음 표기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예가 많다: *leeren vs. lehren, dehnen vs. denen, mahlen vs. malen* 등.⁵⁾

위치5: 유성폐쇄음 앞의 모음은 일부 저지독일어나 네덜란드어, 영어에서 파생된 소수의 경우(*Bagger, Ebbe, Schmuggel, joggen, Schrubber, Roggen, Widder*)를 제외하면 항상 장음으로 나타난다. 위의 단모음이 자음의 중복표기로서 나타나는 것에 반하여, 장모음의 경우 표기법상 어떠한 특징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일한 예외가 /i:/에 대해 <ie>로 표기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aber, leben, Bibel, lieben, loben Grube, Amöbe, trübe; Made, Rede, Fidel, siedeln, Boden, Bude, öde, rüde; Lagen, fegen, Igel, liegen, Roggen, lügen, mögen; Rüge, wägen; Sklave, awig, Mäue; Boje, Kojen; Rasen, lesen, Wiese, Hose, Muse, lösen, Gemüse*.

위치6: 무성폐쇄음 앞에 있는 모음은 중간음이건 말음이건, 또는 단음절이건 다 음절이건 모두 단모음과 장모음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표기법상 장모음의 경

5) Meinhold/Stock (1981, 121ff)의 단어 리스트 참조.

우는 단일자음 그대로, 단모음은 자음중복표기로 나타난다.

p, t, k, f, X, s가 말음인 경우: *Reep, Piep; Tat, gebet, Brot, Gut, Gemüt, spät; Geblöck; Schlaf, tief, Hof, Ruf; nach, hoch, Fluch; Fraß, Speiß, groß, Gruß, süß, Gesäß; knapp, Depp, Galopp, Trupp, Tripp; matt, fett, flott, Schutt, Schritt, Bütt; Lack, leck, Knick, Schluck, Stück; schlaff, Treff, Riff, Stoff, Tuff, Gekläff; blaß, keß, Riß, Roß, Schluß; Fach, Blech, Strich, noch, Geruch.*

p, t, k, f, X, s가 중간음인 경우: *Stapel, Opel, Kiepel; raten, beten, Bote, wüten, löten, jäten; Laken, Ekel, Poker, räkeln, Küken; Tafel, Hefe, Ofen, rufen, Küfer; Straße, schließen, Muße, grüßen, Größe; Nachen, riechen, fluchen; Mappe, Schleppe, Kippe, doppelt, Puppe, Knüppel; Matte, Kette, Motte, Mutter; Acker, Becken, Locke, Buckel, Mücke; Waffe, Neffe, offen, Griffel, Büffel, Löffel; Wache, Becher, Woche, Küche; Gasse, Messer, Kissen, Schüssel.*

위치8과 9: 자음결합의 앞에 있는 모음은 보통 단음이며 표기법상 특별한 형태를 나타내지 않는다. 일부 한정적인 예에 있어서 단모음과 장모음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위치8):⁶⁾

r + 치음: *Geburt, Wert, Erz, Behörde; Marter, Ferse,*

(n, l) + d: *Gemälde, Mond; melden, Sonde,*

(k, p) + s: *Wuchs, Krebs; Luchs, Kebse,*

(k, s) + t: *Vogt, Wüste; Takt, Küste,*

t + f: *grätschen, Bratsche; quetschen, Patsche.*

이와 같이 모음의 장·단음 표기 현상을 분포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치4와 6에서처럼 단모음을 자음중복표기를 통해 항상 표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반대로 그 외의 경우에는 모음의 장·단음에 대한 표기가 대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치5의 경우 모음의 장·단음에 대한 표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위치6에서도 일부 극소수의 예외적 현상을 제외하곤 모음의 특성에 대한 표기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표기법상 장·단음의 뚜렷한 구분이 반드시 이루

6) Philipp (1974, 137), Augst (1980, 313) 참조

어저야 한다는 필연개념을 깨는 것으로서 새로운 규정화 과정에서 염두에 둘 수 있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된다. Meinhold/Stock (1981)의 분석에 의하면 장모음의 69.8%, 단모음의 81.7%에서 표기법상 모음의 길이에 대한 아무런 특징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즉 장모음이건 단모음이건 자소론적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살펴본 관점은 모음의 특성을 표기법상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현상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모음의 장·단음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표기법상에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자소론적 체계에서 실현하는 것이 항상 필수적인 의무는 아니며 오히려 규범화와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복잡성과 난해성을 내포한 무수한 정서법 규칙만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모음의 장·단음 표기법 문제 중에서도 자음의 중복표기를 통한 단모음의 표기법 반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자음중복 표기에 대한 이론적 견해 고찰

모음의 장·단음 특성을 자소론적 체계에 반영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자음의 중복표기 *Doppelkonsonanzschreibung*를 통한 단모음 표기에 대한 대표적인 두 이론적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근래에 이 분야에서 매우 치열한 논쟁이 유발되어 독일 언어학계의 관심이 모아진 분야이므로 새롭게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⁷⁾ 또한 이 분야의 연구결과는 부분적으로나마 새로운 정서법 규정안 마련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통해 상반된 견해가 표출되어 정서법적 논쟁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다음에서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통해 모음의 장·단음 표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II.1 강세기준 관점

강세 Akzent에 기초한 단모음의 표기법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Augst (1991)와

7) Eisenberg (1999), Primus (2000), Ramers (1999a, 1999b) 참조.

Augst/Stock (1997)에 의해 대표되는 학자들에 의해 주창되었다. 이는 새로운 독일어 정서법 규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규칙으로 제시되게 되었다.⁸⁾

§ 2. Folgt im Wortstamm auf einen betonten kurzen Vokal nur ein einzelner Konsonant, so kennzeichnet man die Kürze des Vokals durch Verdoppelung des Konsonantenbuchstabens.

이에 대한 예로서 Ebbe, Widder, Egge, Pappe, Matte, Kartoffel, Wasser, Zimmer, Zinne, Wolle, Karren; Brigg, Galopp, Butt, Riff, Stamm, toll, starr 등의 단어들이 단어 중간에서와 단어 끝에서 자음이 중복 표기되는 경우가 구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특별한 경우로 <kk>와 <zz>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 <kk>의 경우는 Mokka, Sakko와 같은 일부 외래어를 제외하곤 <ck>로 대체해서 표기한다 (예: Hecke, packen, Geschmack, Stuck). <zz> 또한 Pizza, Razzia, Skizze 등의 일부 외래어에서만 사용될 뿐 <tz>로 표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 Katze, sitzen, Putz, Witz). 그러나 <ch>, <sch>, <ng>와 같은 자음결합, 즉 동일자음의 중복이 아닌 개별자음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에서 어떠한 언급도 찾아 볼 수 없다.⁹⁾

강세를 기준으로 단모음을 구분해내 자음의 중복표기가 가능한 경우로 활용하는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서처럼 비강세 음절에 있는 단모음의 경우 자음의 중복표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Atem, reden, redet, Freundin, Bräutigam, Chronik, Kajak*. 또한 장모음과 단모음을 뚜렷하게 구분지어 표기하려는 것은 동음이의어에 대한 우려나 심리적 부담이 있는 경우로 판단될 수 있다. 즉 자음의 중복표기가 단모음을 나타내는 매우 효과적인 표기방법으로 받아들여져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stellen	-	stehn	Stall	-	Stahl
bitten	-	bieten	Kinn	-	Kien

8) Deutsche Rechtschreibung (1996, 22) 참조.

9) Ramers (1999a, 53f) 참조.

alle	-	Aale	Herr	-	Heer
Masse	-	Masße	Schrott	-	Schrot

이와 반대로 비강세 음절에서는 모음은 단음이 된다.¹⁰⁾ 이러한 경우 단모음에 대한 추가적인 표기, 즉 자음중복을 통한 표기는 지나친 경우로 여겨져 보통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강세가 있는 모음 뒤에 여러 개의 자음이 이어진다면 이 모음은 또한 단모음이 된다: *Kiste, Kirsche, binden, Wespe, weden, Karke, Narbe, Zunder, Runzel, borgen, Sonde, kosten, Küste, Bündel, Sünde, Bürge, Töpel, Hörner, Körner, frösteln; Mist, First, Rest, fern, Wald, alt, Sarg, Wurm, Gold, blond, fünf, zwölf*. 물론 이와 달리 모음 뒤에 여러 개의 자음이 나타나나 단모음이 아닌 경우도 많다: *Adler, Nüster, düster, Wüste, Rätsel, Kloster, Ostern, Priester, Bratsche, grätschen, Erde, Herde, Behörde, Gemälde, Gebärde, ahnden, fahnden; Erz, Quarz, Arzt, Wert, Schwert, Herd, Pferd, Mond, Obst, Papst, Probst, Krebs, Wuchs, Wust, Trost, Vogt*.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강세를 기준으로 한 모음의 장단음표기는 많은 예외의 경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장모음과 단모음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음을 중복 표기하여 모음의 단음 특성을 표기하는 것이 필연적 일 수 있겠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어떠한 규칙성과 합리적 활용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번 새로운 정서법 규정에 담겨진 강세를 기준한 모음의 단음 표기법은 완벽한 규정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외로서 우리는 비강세 모음 뒤에 자음중복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galoppieren (Galópp), horrénd (Hórror), kontrollieren (Kontrólle), Spinneréi (spinnen)*. 나아가 자음이 연속해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음중복 표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trifft (treffen/trefflich, Treffpunkt), brennt (brennen/brennbar, Brennmaterial), dümmste (dumm/Dummchen), Watts (Watt)*. 이러한 현상은 음운론과 자소론적 관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자

10) 이러한 전제는 완전히 비강세인 음절에서만 가능하다 (예: *Atem, reden, redet...*). 2차 강세가 있는 음절에서는 장모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Ramers 1988, 212-216 참조): *Himbeere; Demut, Heimat, Bischof* 등.

소론적 구조와 형태론적 구조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경우를 형태론적 원칙, 또는 어원론적 원칙이라 일컫는다. 이는 모든 형태소가 동일한 자소론적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정서법의 한 표기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형태론적 원칙은 단어의 굴절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동일한 표기형식을 유지하여 표기형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에도 표기법상 그 기본 원형(어원)을 유지시켜 일관성 있는 자소론적 표기 형태를 지속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 또한 오늘날 새로 마련된 정서법 규정에서 완벽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As-Asse, Nummer-numerieren, Tip-tippen, Paket-packen에서처럼 형태론적 원칙에서 벗어나는 표기법들이 아직도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형태론적 원칙 측면에서 Ass, nummerieren, Tipp, Packet와 같은 표기가 규정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여전히 논란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강세기준의 자음중복 표기법은 음운론과 자소론적 관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보완적으로 형태론적 원칙을 일부 도입하여 활용한다면 보다 폭넓은 규칙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모음의 장·단음을 완벽하게 구분 지어 표기법상에 반영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본다. 모음의 특성을 모음 자소나 후속 하는 자음의 자소로 표기하는 문제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적용기준과 규정 마련에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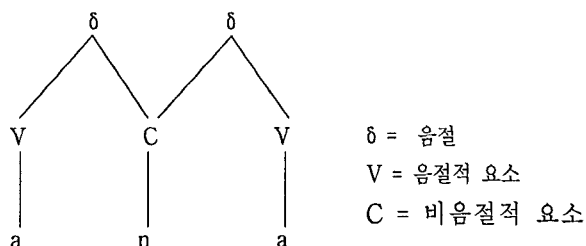
II.2 음소기준 관점

모음의 단음을 표기하기 위한 자음중복 현상에 대해 또 다른 관점은 Peter Eisenberg (1989, 1995, 1999)가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음소를 기준으로 하는 표기방법이 있다. 이 경우 자소론적 자음중복 표기는 모음의 특성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음절접합 Silbengelenk으로서의 기능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데 이론적 특징이 있다 (예: fallen, kennen, retten):¹¹⁾

11) Eisenberg (1995, 70) 참조.

In den Fällen wird ein Silbengelenk durch Verdoppelung des Konsonantengraphems dargestellt.

즉 자음중복 표기와 관련된 자음의 발음상 특성을 직접 연관지어 생각하는 관점이다. 이 경우 자음은 모음의 사이에 위치한 단어들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Eisenberg의 분석에 의하면 중복자음은 단모음 뒤에서 음절접합을 만들어내게 된다. 아래의 표에서처럼 예문 *Anna*는 CV모델에서 그 구조가 보다 명확하게 분석된다는 입장이다.¹²⁾



이 모델은 3개의 층위로 구성된다. 맨 위에 음절층위 (δ)가 있으며, 그 밑에 CV-층위가 자리잡고 있다. 이는 추상적인 음절위치(음절적 대 비음절적)를 나타내며 또한 음절의 장단음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맨 아래 층위의 경우 음성학적 특성이 표현된다.¹³⁾ 위의 표에서 중복 표기된 자음쌍은 C-위치의 결합을 통해 두 개의 음절접합 (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음절접합의 형성은 표기상 선형적으로 일어나며 이는 자음의 중복표기로 나타나게 된다. 즉 음소기준 관점은 “음운론적 체계에서 음절접합(자음쌍)은 자소론적 체계에서 중복자음 표기와 연관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중복자음이 표기상 음운론적 체계에서 선행하는 모음의 특성이 아닌 해당 자음의 특성과 직접 연관되는 장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관점 또한 많은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표기법상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내지는 못하고 있다.¹⁴⁾

12) Ramers (1999a, 57) 참조.

13) 자세한 사항은 Wiese (1996) 참조.

14) 강세모음 뒤에 음절접합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음중복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

접합자음 *Gelenkkonsonant*은 단모음 뒤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자음중복 현상이 단모음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간접효과에 불과하다. Eisenberg의 이론적 관점은 언어의 자연현상이 아닌 하나의 언어변화 추이에 대한 설명(또는 제안)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일상적인 어휘에서는 자음중복 표기가 자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접합자음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Kapitel, City, Limit, Anorak*. 또한 접합자음은 비강세 단모음보다는 강세 단모음에서 훨씬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단어의 음운론적 구조에서 접합자음이 나타난다면 이는 주변환경적 제한이 없는 자음중복으로 표기된다는 입장이다.

부분적으로는 음소기준 관점에서나 형태론적 기준에서의 유추표기 *Analogieschreibung* (예: *Kamm-Kämme, kann-können*)가 아닌 예도 있다: *dann, wann, wenn, statt, trotz, schwupp, klick, baff*. 이는 음소기준에 의한 중복표기 규칙이 모든 자음의 중복 표기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칙들이 보완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규정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가중시켜 활용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한가지 제안으로서 지금까지의 관점이 주로 음운론적 체계를 자소론적 체계에 도입하려는데 주안점을 두어 나타난 문제라면, 이와 반대로 자소론적 관점에서의 음소 특징에 대한 표기를 생각해 본다면 훨씬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며 명료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간과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즉 “중복자음이 나타나면 그 이전 모음은 단음이다”와 같은 입장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¹⁵⁾

II.3 두 이론적 관점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중복자음 표기에 대한 두 이론적 관점은 모두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느 이론도 완벽한 규칙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두 이론적 관점 중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 이론을 경우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세기준 관점의 경우 일부 토속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Brombeere, Danwild, Himbeere, Walnuss*,

는 표기의 경우가 일부 외래어에서 종종 나타난다: *Ananas, Anorak, City, Kamera, Kapitel, Limit, Mini, Roboter*.

15) Primus 2000, 18 참조.

Imbiß, Imker, Sperling. 이의 해결책으로 음소기준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해당 자음이 음절접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 *Bollwerk, Klippschule, Krickente, Schellfisch, Blickbeere, Kitchten*. 이렇듯 두 이론적 관점은 단어의 표기에 있어 부분적으로 매우 유용하며 명쾌한 설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어느 한 이론만을 적용하여 명료한 규칙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두 관점이 융화되어 좀 더 진전된 새로운 이론적 관점이 요구된다. 특히 형태론적 관점에 대한 연구의 진척이 필요하며, 나아가 다른 이론적 관점도 활성화되어 서로 상호연관성 있는 이론적 토대 속에서 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 새롭게 개정된 정서법 규정도 이 부분에서는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모음의 장·단음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게 나타나므로 다른 어느 분야에 비해 어렵고 추상적인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의 방관보다는 또는 언어학자들의 자신의 전문분야만을 강조한 이론적 접근 방법보다는 보다 폭넓은 상호관련성 있는 이론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해결책을 마련코자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언어학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¹⁶⁾

III. 맺음말

모음의 장·단음 특성을 자소론적 체계, 즉 표기법상 나타내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를 포괄하려는 매우 다양한 규칙들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언어교육적 측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우리는 어느 한 이론적 관점만으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모음의 장·단음 표기가 불가능하여 많은 예외의 경우를 인정하게 되고, 이의 극복을 위해 또다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선 이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보기 위해 무엇보다 모음의 장·단음 표기에

16) 정서법 개정안이 제시되기 이전의 DUDEN-Rechtschreibung (20. Aufl. 1991)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으며, 어떠한 언급도 찾아 볼 수 없다.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방대하게 장·단음에 대하여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법들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전혀 표기되지 않는 경우까지 매우 방대하고 극단적인 현상 모두를 일부 언어학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몇몇 규정들로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기법상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모음의 장·단음에 대한 자소론적 구분 표기를 자제하는 정서법적 단순화 방향으로의 전환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모음이나 단모음의 특성을 표기법상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단음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어에서처럼 그 의미해석이 문맥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기방법을 단순화함으로써 지나치게 음운론적 측면의 특성을 자소론 체계에 반영하고자 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언어학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Augst, G. (1980): Die graphematische Dehnungsbezeichnung und die Möglichkeiten einer Reform. In: Deutsche Sprache 8, 306-326.
- Augst, G. (1985a): Dehnungs-h und Geminate in der graphematischen Struktur. In: Ders. (Hrsg.), Graphematik und Orthographie. Frankfurt a. M., 112-121.
- Augst, G. (1985b): Die Bezeichnung der Vokalkürze im Deutschen. In: Augst, G., Regeln der deutschen Rechtschreibung vom 1. Jan. 2001. Frankfurt a. M., 52-67.
- Augst, G. (1987): Zur graphischen Bezeichnung der Vokalquantität bei Fremdwörtern. In: Zabel, H. (Hrsg.), Fremdwortorthographie. Tübingen, 94-110.
- Augst, G. (1991): Alternative Regeln zur graphischen Kennzeichnung des kurzen Vokals im Deutschen - ein historischer Vergleich. In: Augst, G./Ehrisman, O./Ramge, H. (Hrsg.), Festschrift für Heinz Engels zum 65. Geburtstag. Göppingen, 320-344.
- Augst, G./Stock, E. (1997): Laut-Buchstaben-Zuordnung. In: Augst, G./Blüml,

- K./Nerius, D./Sitta, H. (Hrsg.), Zur Neuregelung der deutschen Orthographie: Begründung und Kritik. Tübingen, 113-134.
- Deutsche Rechtschreibung (1996): Regeln und Wörterverzeichnis. Text der amtlichen Regelung. Tübingen.
- DUDEN Aussprachewörterbuch (1990). Wörterbuch der deutschen Standardaussprache. 3. Aufl. Mannheim.
- DUDEN Die Rechtschreibung der deutschen Sprachen (1991). 20. völlig neu bearb. u. erw. Aufl. Mannheim.
- Eisenberg, P. (1989): Die Schreibsilbe im Deutschen. In: Eisenberg, P./Günther, H. (Hrsg.), Schriftsystem und Orthographie. Tübingen, 57-84.
- Eisenberg, P. (1995): Der Laut und die Lautstruktur. der Buchstabe und die Schriftstruktur des Wortes. In: DUDEN: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5. Aufl. Mannheim, 21-84.
- Eisenberg, P. (1999): Vokallängenbezeichnung als Problem. Linguistische Berichte 179, 343-349.
- Maas, U. (1989): Dehnung und Schärfung in der deutschen Orthographie. In: Eisenberg, P. (Hrsg.), Schriftsystem und Orthographie. Tübingen, 229-249.
- Meinhold, G./Stock, E. (1981): Untersuchungen einer Reform der deutschen Orthographie auf dem Gebiet der Phonem-Graphem-Beziehungen (PGB). In: Sprach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 einer Reform der deutschen Orthographie. Berlin (=Linguistische Studien, Reihe A, 83/1), 55-153.
- Meinhold, G./Stock, E. (1982): Phonologie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2.Aufl. Leipzig.
- Munske, H. H. (1997): Phonotaktik und Orthographie. In: Orthographie als Sprachkultur, Frankfurt a. M., 31-55.
- Philipp, M. (1974): Phonologie des Deutschen, Stuttgart.
- Primus, B. (2000): Suprasegmentale Graphematik und Phonologie: Die Dehnungszeichen im Deutschen. In: Linguistische Berichte 181, 9-34.
- Ramers, K. H. (1988): Vokalquantität und -qualität im Deutschen. Tübingen.
- Ramers, K. H. (1999a): Vokalquantität als orthographisches Problem: Zur Funktion der Doppelkonsonanzschreibung im Deutschen. In: Linguistische Berichte 177, 52-64.
- Ramers, K. H. (1999b): Zur Doppelkonsonanzschreibung im Deutschen: Eine Rereplik. In: Linguistische Berichte 179, 350-360.

- Roemheld, F. (1955): Die Längenbezeichnung in der deutschen Rechtschreibung.
In: Der Deutschunterricht 7, 71-82.
Wiese, R. (1996): The Phonology of German. Oxford.

Zusammenfassung

Zur orthographischen Diskussion über die Probleme der graphischen Bezeichnung der Vokalquantität im Deutschen

Lee, Jinhee (Youngsan Univ.)

Die graphische Markierung der Vokalquantität im Deutschen gilt als komplex und schwerlernbar. Die Geminaton von Konsonantbuchstaben gehört auch zu den auffälligsten Erscheinungen der deutschen Orthographie. Da hierzu verschiedene Mittel eingesetzt werden. In der Mehrzahl der Fälle bleibt die Vokalquantität unbezeichnet, Vokallänge e, a, o durch Doppelvokal, bei i durch <ie> oder generell durch Dehnungs -h markiert. Das Thema ist insbesondere seit Mitte der 80er Jahre immer wieder behandelt worden und zwar unter linguistischen wie didaktischen, unter psycholinguistischen wie schriftheoretischen Gesichtspunkten.

Zunächst versucht man, die Regelhaftigkeit der Quantitätsbezeichnungen aus der Berücksichtigung phonotaktischer Gegebenheiten zu begründen. Und um im Detail zu untersuchen, wählt man einen Teilaspekt der Thematik aus, die Vokalkürze und ihre Bezeichnung durch die Doppelkonsonanzschreibung: 1) der akzentbasierte Ansatz und 2) der phonembasierte Ansatz. Beide Ansätze haben gemeinsam, dass sie zwar den Datenbereich im großen und ganzen und ganz recht gut abdecken, aber von einer Beschreibung nicht zu einer Erklärung der Wortschreibung verstoßen. Wünschenswert ist daher ein Beschreibungsansatz für die Konsonantenverdoppelung, der zum einen sowohl die Phonem- als auch die Akzentstruktur einbezieht, zum anderen die Auswirkungen der verschiedenen Schreibungen auf den Leseprozess ins Auge fasst.

[검색어] 정서법, 모음표기법, 자음중복표기법
Rechtschreibung, Vokallaengenbezeichnung,
Doppelkonsonanzschreibung